

2020_05_13 회의

센서가 받을 수 있는 거리 한계성을 고려하자.

20미터의 거리도 파악 가능한지 또한 쟁점이다. -> 쓸모없는 정보 알림을 받지 않기 위해(이미 지나간 사람은 정보 받지 x), -> 이것 또한 구현하는 것이 관건

바 기준으로 거리 계산하여 보행자까지의 거리 계산 후 그 거리 안에 있는 차들에 알림을 보내준다. 직선 말고 곡선도 파악 할 수 있도록 구현하면 좋을 것 같다.

스쿨존에 바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 구현할 것,

어린이가 대각선으로 횡단보도 등 도로를 가로지를 경우-> 이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운전자 과실의 경우가 대부분임(운전자 시야 확보 충분히 가능), 따라서 이 경우는 따로 예외처리를 하기 보다는 안전 바를 더 좁은 간격으로 앞뒤로 많이 뒀으로써 해결 가능할 듯

스쿨존 들어가서 아이가 튀어 나오는지 알림을 주는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 스쿨존 진입, 나감 알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.

안전 바 설치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가정. -> 설치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구현하기로 함. (딥러닝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)

코너와 직선을 고려하여 그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봐야 함-> 범위를 정해서 알림을 주는 것이 베스트이긴 하다. 한편 이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지가 문제

iot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서버로 넘기고, 서버에서 app에 알림을 준다. 자동차 근방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주는 것 보다 운전자가 등장하거나 아이가 등장하는 이벤트 등을 해당 운전자에게만 주는 식이 괜찮을 것 같다.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알림을 준다.

아무 상관없는 알림을 배제하기 위해(신뢰도 높이기 위해)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. 불필요한 알림은 사용자 입장에서 앱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.

아이오티 측에서는 알림 줌으로써 서버와 gps 연동하는 게 좋을 듯

다음 2차 중간발표 역할 분담 진행: 김영진, 오병설- 자료조사, 김수연- ppt, 이지연- 자료 수정 및 발표, 나여주- 동영상 편집

직선거리 알고리즘 생각: 스쿨존 진입 시 알림은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논의 해 보았다.